

2018. Vol.22

올 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905-6(교학), 7903(입시), 7904(서무), 7922(시설), 7914(기획홍보)
<http://music.snu.ac.k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About Us] 연혁 & 학과	4
[Review] 가을학기 주요 공연 및 행사	6
[Interview] 최경환 교수님	10
[Interview] 김민지 교수님	12
[International Education and Outreach] 국제 교류 및 협력	14
[Fall 2018 Events] 2018 가을학기 행사	16
[Awards] 콩쿠르 입상자	18
[Sponsorship] 발전기금 후원자 명단	19

SNU
MUSIC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혁

- 1945 경성음악학교 설립
- 1946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설립
- 1953 예술대 음악부가 음악대학으로 개편
- 1959 국악과 신설
- 1962 음악도서관 개관
- 1963 대학원 과정에 국악과(이론전공) 신설
- 1973 기악과 타악기전공 개설
- 1974 기악과 하프전공 개설
- 1976 음악대학이 관악 캠퍼스 예술관으로 이전
- 1976 동양음악연구소 설립
- 1981 작곡과 이론전공 신설
 - 대학원 4개 학과(성악, 작곡, 기악, 국악) 통합
 - 음악학과로 명칭 변경
- 1983 국악과 실기전공 석사과정 신설
- 1984 음악과 이론전공 석사과정 신설
- 1989 음악대학 협동과정 음악학(서양음악학, 한국음악학) 박사과정 신설
 - 서양음악연구소 설립
- 1994 오페라연구소 설립
- 1996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콘서트
- 2000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 개관
- 200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 창립
- 2004 음악과 작곡전공 박사과정 신설
 - 국악과 실기전공 박사과정 신설
- 2006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콘서트
- 2010 예술과학센터 설립
- 2012 작곡과 전자음악전공 신설
 - 음악과 서양음악학 박사과정 신설
- 2015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74동) 개관
- 2016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콘서트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과

성악과

성악과는 1946년에 서울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1985년 4월 8일 문화관 개관기념 연주회를 시작으로 하여 매학기 개강 · 종강음악회, 강의 종강 음악회와 매년 영미 · 프랑스 · 독일가곡 등 예술가곡 연주회 및 아리아 연주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연구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실 안내 54동 116호 | 02-880-7930~1)

작곡과

작곡과는 작곡전공, 이론전공, 그리고 지휘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작곡과는 작곡에 관한 이론과 기법뿐만 아니라 음악학을 연구 및 교수하여 유능한 작곡가, 음악학자 및 지휘자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무실 안내 작곡 및 지휘 전공 : 220동 410호 | 02-880-7944 / 이론 전공 : 220동 425호 | 02-880-7945)

기악과

기악과 피아노전공은 훌륭한 교수진 아래에서 음악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론 수업들과 더불어 연주수업, 춘 · 추계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기회를 통해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초를 다진다. 기악과 현악전공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기타, 하프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전공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 음악계뿐 아니라 세계 음악계의 중심에서 연주자뿐 아니라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기악과 관악전공은 목관, 금관, 타악으로 구성된다. 관악전공은 각 악기별 전공학생들에게 교수진과 더불어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주자들을 초빙하여 다각도의 교육을 제공한다.
(사무실 안내 54동 110호 | 02-880-7960~1)

국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한국음악의 학문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국악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959년에 창설되었다. 국악과의 학부전공은 현재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 타악, 국악작곡, 국악이론, 국악성악, 국악지휘로 세분되어 교육되고 있다.
(사무실 안내 54동 115호 | 02-880-7981~2)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특별기획연주 <Gustav Mahler Symphony No. 9>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18 특별 기획연주 《9th Symphony Series》의 첫 번째 공연 <Gustav Mahler Symphony No.9>가 지난 2018년 5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임현정의 지휘 하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압도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말러의 치열한 고민과 철학이 스며들어 있는 교향곡 9번은 지휘자 임현정만의 해석과 SNU심포니 학생들의 깊이 있는 연주와 어우러져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서울대학교 기악과 2,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전문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연주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위대한 작곡가들의 마지막 교향곡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기획된 2018 특별 기획연주 《9th Symphony Series》는 앞으로 두 번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9>, 세 번째 공연은 <Anton Bruckner Symphony No.9>로 이는 교향곡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먼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9>는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뿐 아니라 전상직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복>’ 세계 초연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 <Anton Bruckner Symphony No.9>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19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관객들을 맞는다. 프로그램으로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 9번 라단조, 작품번호 109’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3번 라단조 6악장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What Love Tells Me)’의 두 곡이 연주된다.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남은 두 공연에서 또 어떤 아름다운 연주로 관객들을 찾아올지 기대되는 바이다.

음악대학 주요 행사 모아보기

화요음악회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석 초대 음악회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3월 27일에는 <2018 SNU 국제음악캠프>의 실내악 캠프를 통해 선발된 두 팀인 TRIO22와 BEATUS TRIO가 꾸미는 2018년 상반기 첫 화요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W. A. Mozart)의 <Kegelstatt trio, K. 498>과 안톤 아렌스키(A. Arensky)의 <Piano Trio No. 1>가 연주되었다.

4월 3일에는 <첼로와 봄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서울대학교 기악과 신입교수이신 첼리스트 김민지의 연주가 펼쳐졌다. 슈만(R. Schumann)의 <Adagio and Allegro>, <Fantasiestücke>, 드뷔시의 <Cello Sonata>, 쇼팽(F. Chopin)의 <Polonaise Brillante>, 피아졸라(A. Piazzolla)의 <La Muerte del Ángel for 4 cellos>, 비제(G. Bizet)의 <“Carmen Suite” for cello quintet>이 연주되었다.



4월 10일 열린 세 번째 화요음악회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황병기(1936~2018)>를 추모하며>였다.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영목>, 성악과 가야금을 위한 <추천사>, 대금독주곡 <자시>, 가야금독주곡 <석류집>,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침향무> 등 故 황병기 선생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4월 17일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으로 클라리넷에 Dominique Vidal, 호른 김영률, 오보에 전미영, 바순 김형찬, 피아노 김가람의 5명의 연주자와 SNU Wind Ensemble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모차르트(W. A. Mozart)의 <Serenade no. 12 in c minor K. 388>, <Quintet for Piano and Winds in E flat Major K. 452>와 슈트라우스(R. Strauss)의 <Serenade in E flat Major op. 7>를 만나볼 수 있었다.

4월 24일 2018년도 상반기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드뷔시 서거 100주년 특별연주회>로 꾸며졌다. 플루티스트 Yuki Koyama, 하프 한승희, 비올라 정승아, 피아노 투치아잉, 이성현과 SNU 창작음악연주단이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시링크스>, <소나타> 및 <드뷔시 오마주>가 연주되었다.

SNU 렉처

2018년 상반기 SNU 렉처 시리즈의 첫 번째 특강은 세계적인 포르테피아노 제작자 폴 맥널티(Paul McNulty) 초청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Structure and proportion of 18/19th century piano building in relation to the sound ideal of various composers>라는 제목으로 3월 1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3월 2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Mongolian Folk Music>이라는 제목으로 몽골의 전통악기 연주가 Chinbat Baasankhuu의 렉처가 열렸다. Chinbat Baassankhuu는 몽골의 전통 현악기 야탁과 한국의 가야금을 비교하여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다. 이번 SNU 렉처를 통해 그의 강의 뿐 아니라 연주도 들을 수 있었다.

5월 15~17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배음 창법 연주가이자 인류음악학자인 마크 반 통게렌(Mark van Tongeren)의 공연 및 특강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는 워크샵 <요가와 창법(Voice Yoga)>, 특강 <귀와 목이 만났을 때-배음 창법과 경청에 대하여> 뿐 아니라 마지막 17일에는 서울대학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배음 창법 연주>라는 타이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5월 16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빈 국립 음대 지휘 교수이자 작곡가인 시메온 피론코프(Simeon Pironkoff)의 워크샵 콘서트 가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연주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Studio2021 <Debussy&Vienna>

2018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는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Debussy&Vienna>라는 타이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본 공연은 일신문화재단 주최의 [2018 Ilshin PRISM Concert 시리즈] 세 번째 공연으로 전석 초대로 진행되었다. 드뷔시 뿐만 아니라 빈을 무대로 활동 했었던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 초청작곡가 조 커틀러, 젊은 작곡가 문석민과 오종성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빈 국립음대 교수인 Simeon Pironkoff의 지휘로 플룻 권영인, 피아노 전지훈, 첼로 조재형, 바이올린 추

현주 뿐 아니라 WIN Ensemble, LATT Quartet, Beatus Quartet, SNU New Music Ensemble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Studio2021 <Sound of Universe>

2018년 5월 1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 시리즈 Studio2021의 상주연주단체 Ensemble2021의 봄 시즌 정기연주회가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Ensemble2021은 매년 새로운 음악적 콘텐츠로 관객들을 찾아오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Sound of Universe>를 주제로 조지 크럼(George Crumb)의 <마크로코스모스>(Makrokosmos) 제 2권 전 12곡과 바흐(J. S. Bach)의 <골드베르크 변주곡>(Goldberg Variations)의 현악 3중주 버전을 새로운 전자음향으로 들려주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신입 교수인 첼리스트 김민지와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 재학생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더욱 풍성해진 연주를 즐길 수 있었다.

전통음악연주회

2018년 5월 24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전통음악연주회>가 열렸다. 이 날 공연에서는 <취타•절화>, <가사 황계사>, <가곡 편수대엽>, <전추산류 단소산조>, <새가락별곡>, 판소리 <만정제 춘향가 중 어사 출두>가 연주되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음악회

2018년 5월 30일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연은 모차르트(W. A. Mozart), 롯시니(G. Rossini), 도니제티(G. Donizetti), 벨리니(V. Bellini), 베르디(G. Verdi), 스트라우스(J. Strauss), 푸치니(G. Puccini)의 오페라 서곡 및 아리아, 오페라 하이라이트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들로 꾸며졌다.

SNU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2018년 6월 1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SNU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기악과 최경환 교수 퇴임기념 헌정 연주로 특별하게 꾸며졌다. 제자 타악기 앙상블의 아이반 트레비노(Ivan Trevino)의 <캐칭 쉐도우>(Catching Shadows) 특별연주가 첫 순서를 장식하였다. 이어 페레르 페란(Ferrer Ferran)의 심포닉 밴드를 위한 서정시 <불멸>(La Inmortal),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의 <세헤라자데 교향적 모음곡>(Sheherazade Symphonic Suite, Op. 35)이 연주됐다.

SNU 윈드앙상블 연주회

2018년 6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윈드앙상블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기악과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의 축전서곡(Festive Overture, Op. 96)과 프리드리히 굴다(F. Gulda)의 첼로 협주곡(첼리스트 김민지 협연), 슈완트너(J. Schwanter)의 <산은 어디에서도 솟아나지 않고>(And the Mountains Rising Nowhere), 필립 스파크(P. Sparke)의 전체의 음악(Music of the Spheres for Concert Band)이 연주되었다.

WIN 장학금 수혜자 연주회

2018년 6월 2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82동) PC홀에서 WIN 장학금 수혜자 연주회 ‘아름다운 날’(UN BEL DI)이 열렸다. 김진수(Clarinet), 고태영(Tenor), 이호정(Piano), 신다영



(Soprano), 배승혜(Composer) 등 5명의 음악대학 실기 최우수자들이 꾸미는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다. 도니제티(G. Donizetti), 롯시니(G. Rossini), 바흐(J. S. Bach), 푸치니(G. Puccini), 레하르(F. Lehár)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2018 국제창작음악주간

2018년 6월 19일에서 21일 제 2회 <국제창작음악주간>(International Music Workshop & Concert)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국내 외 작곡가, 연주가, 학자 등 저명 인사의 특강 및 워크샵 뿐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첫날인 6월 19일에는 인류음악학자이자 VOA 라디오 프로그램 <Music Time in Africa>의 진행자 헤더 맥스웰(Heather Maxwell)의 특강 <아프리카에서의 VOZ: 음악이 수백만 명의 사람과 소통하는 법>이 열렸다. 또한 관악학생생활관 사랑채에서는 보더리스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20일에는 바레인 출신의 작곡가이자 작가인 핫산 헤자이리(Hasan Hujairi)가 특강 <역사와 관습에서 나타난 아랍의 전통 음악과 우드(oud)>을 통해 학생들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1일에는 작곡가이자 도쿄예술대학교 교수인 이사오 마츠시타(Isao Matsushita)의 특강 및 쇼케이스 <Global Sounds: A Kaleidoscope of Africa, Arabic and Korean Music>가 열렸으며 IMWC 파이널 콘서트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학생들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끝없는 고민"

최경환 교수님 인터뷰



지난 8월 26일, 퇴임을 맞이하신 최경환 교수님을 만났다. 최경환 교수님은 국립교향악단 단원과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팀파니 수석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타악기 앙상블 및 4plus 타악기 앙상블 창단 후 리더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였다.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벨링크 음악원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타악인회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오랜 시간 학교에 몸담았던 만큼 감회가 남다를 교수님께 교수로서 재직하셨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쭙 보았다. “일단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교향악단에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고, 돌아와서 서울시향 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왔다가 십 여년을 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게 모든 게 술술 풀렸던 거죠. 그런 점에서 교수로 재직하신 시간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을 낮췄다.

본래 작곡을 전공하시다가 타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예고를 나왔는데요, 당시 교감 선생님이 제 작곡 전공 지도 교수가셨습니다. 작곡을 하려면 다루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 분의 권유로 인해서 악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팀파니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KBS나 시향 등에서도

제대로 된 악기 구비가 힘들 때였습니다. 그 때 학교에서 팀파니를 구입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악기를 처음 접하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교수님은 다수의 교향악단에서 연주하였고 1987년 최경환 독주회를 시작으로 수회의 독주회를 개최하였으며 타악기 앙상블 4plus 창단 후 리더로 활동하며 2015년까지 총 21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이처럼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온 교수님께 연주자로 활동하는 것과 교수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교수님은 “저는 단계를 잘 거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에서 15년 가량을 활동하다가 교수라는 다른 세계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둘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교향악단에서 생긴 노하우와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연주자로서 활동하는 것도 보람차지만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보람찬 활동입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 최고라서 별 어려움 없이 지식이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하시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6월 제자들이 꾸민 퇴임 기념 헌정 연주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쭙보자 “일단 제자들에게 고마웠고 연주회에 나타난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성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으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 놓고 수확을 할 때 뿌듯하듯이 그런 점이 좋았어요. 반면에 거기 나타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었죠.”라고 답했다. 덧붙여 “피아노 같이 인원이 많은 과와는 달리 한 학년에 2명씩 들어오다 보니 식구와 동료 같은 느낌으로 같이 지냈었죠”라며 함께 시간을 보낸 제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오랜 세월 교수 생활 중 뿌듯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묻자 “일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때가 가장 뿌듯하죠. 또 표면적으로 보면 콩쿠르에 가서 입상을 해올 때도 보람이 있습니다. 콩쿠르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제자가 남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교수로서 뿌듯한 것 같아요”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형그리 정신을 가지고 음악을 대하라고 말하는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너무 고생을 했는지 1, 2학년 때는 약간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꾸준히 훈련을 했으면 더 크게 될 수 있는 학생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 기교 위주로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악적인 면이 결여된 부분도 보일 때가 있어 아쉬웠습니다.”라며 교육자로서 가졌던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교수님은 이어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테크닉은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 수단일 뿐이니 항상 마지막은 머리로 연주하지 말고 가슴으로 연주하길 바랍니다.”라며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교육이 수동적이고 모든 교육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도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능동적인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교양과목이 다른 외국학교에 비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합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유롭게 고민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대학에서 마저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에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능력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가장 좋은 위치만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퇴임 후에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는 교수님께 끝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여쭙보았다. “해주고 싶은 한마디라.. 얼마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확신을 못하기는 합니다. 세상이 워낙 각박해지고 있어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라며 말문을 댔 교수님은 “그래도 ‘기회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니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오라.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라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타악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서울대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최경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인터뷰·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사람냄새 나는 교육자"

김민지 교수님 인터뷰

서울대학교 기악과로 부임하신 김민지 교수님을 만나보았다. 김민지 교수님은 2003년 미국 아스트랄 아티스트 내셔널 오디션에서 우승하면서 미국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엠마누엘 포이어만 국제 첼로 콩쿠르, 프리미오 아르투로 보누치 국제 첼로 콩쿠르, 허드슨 밸리 현악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깊고 섬세한 소리와 현란한 테크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첼리스트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수님께 먼저 서울대에 부임하신 소감을 묻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훌륭한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어께가 매우 무겁습니다”라며 감회를 밝혔다.

4살때부터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우고 아버지께서 취미로 첼로를 배우시는 걸 어께 너머로 보다가 흥미를 느껴 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첼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민지 교수님. 그는 “집안에 음악가가 아무도 없었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전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민지 교수님은 만 16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로 입학, 2000년 졸업과 동시에 도미하여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 전문 연주자 과정 및 최고 연주자 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였으며, 2005년 프랭크 헨팅턴 비비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되어 프랑스 툴루즈 콘서바토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와는 다르게 음악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다고 한다. “가정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여러 번 첼로를 관피아 할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위에서 도와 주시고 그만두지 않게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자신도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언제나 좋은 연주를 들려주시는 교수님께서는 “항상 진솔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연주에 임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소리에서 자만하지 않는 태도와 겸손함이 들리도록 노력합니다”라며 연주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또한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 가치관과 생각이 거울처럼 비추어 지는 것이 예술이기에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무대이든 작은 무대이든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에 더욱더 진심을 다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음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

이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여쭙보았다. 이에 대해 “교육자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음악관, 더 나아가 예술관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깊이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과 호흡하며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연주자로서의 삶과 음악교육자로서의 삶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는지 묻자 “연주자로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항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과 공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교육자로서의 삶은 함께 호흡하고 학생들의 심리적이고 음악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해하며,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누군가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학생들과의 호흡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울대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나 교수로서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자 “서울대학생들 모두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훌륭한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진심으로 음악인의 길을 걷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음악가로서의 첫 시작을 폭넓게 공부하고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음악적 경험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함께 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그는 “훌륭한 음악가로서 또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길 바라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돕고 싶습니다. 음악의 본질에 대해 항상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멋진 서울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과 호흡하며 사람 냄새가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김민지 교수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다. 끊임없이 음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연주자이자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승으로서 앞으로 그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인터뷰·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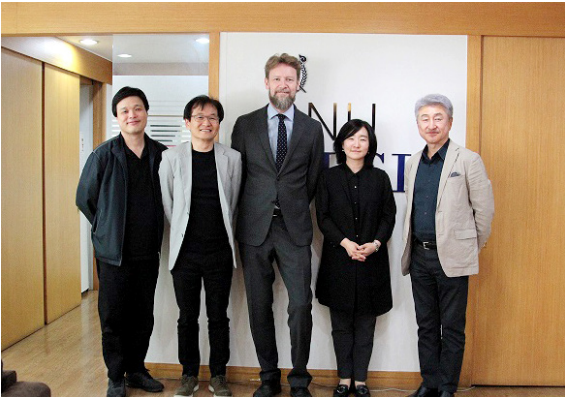


국제 교류 및 협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외 여러 음악가 혹은 음악 교육기관과 예술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저명한 해외 연주자 및 교수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유익한 강연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다수 마련하였다. 3월 21일 <Chinbat Baasankhuu 몽골 전통 음악 лек처>를 시작으로 <Keith Howard(Professor Emeritus, SOAS, University of London) лек처>, <Takuya Otaki 현대음악 워크숍>, <Mark van Tongeren(배음 창법 연주가이자 인류음악학자) лек처>, <Semion Pironkoff(오스트리아 빈 음악대학 교수) лек처> 등 다양한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으로 특별하고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학장님 방문, Chigiana 음악원 서울대 방문 및 여름캠프 참여, ISCEF(Indonesian Student Cultural & Educational Foundation) 방문 및 공연, 마츠시타 동경예대 부학장님 방문 등 해외 음악 교육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싱가포르 용시토 음악원과 교류협력을 맺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지난학기 음악대학에서는 лек처, 공연, 캠프, 협정 등 국제 교류를 통한 여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획과 행사, 연주,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가을학기 주요 공연 및 행사



9. 10.(월)~9. 14.(금)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10. 30.(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SNU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9. 10.(월)~9. 14.(금) 예술관 콘서트홀 오페라연구소&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공동주최 〈조아키노 로시니 서거 100주년 기념 ‘로시니를 찾아서’〉	11. 06.(화) 문화관 중강당 화요음악회) 국악과 교수음악회
9. 11.(화) 문화관 중강당 화요음악회) 예술주간 특별 화요음악회	11. 17.(토)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10. 5.(금) 예술관 콘서트홀 STUDIO2021 미니콘서트 〈Trio Catch〉	11. 19.(월) 예술관 콘서트홀 피아노과 정기연주회 〈드뷔시 서거 100주년 음악회〉
10. 8.(월) 예술관 콘서트홀 Ensemble2021 Concert 〈Sound of Universe - Eternal Time〉	11. 26.(월) 예술관 콘서트홀 현악합주 공연
10. 15.(월) 예술관 콘서트홀 Ensemble Academy Concert I 〈Time Study〉	11. 27.(화) 예술관 콘서트홀 국악과 협연의 밤
10. 16.(화) 문화관 중강당 화요음악회) 윤혜리 & 관악앙상블 연주회	11. 28.(수) 문화관 대강당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on Bruckner Symphony No.9〉
10. 23.(화) 문화관 대강당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 29.(목) 문화관 대강당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 23.(화) 문화관 중강당 화요음악회) SNU실내악연주회	12. 3.(월) 예술관 콘서트홀 Ensemble Academy Concert II
10. 25.(목) 국립국악원 예약당 국악정기연주회	19. 2. 18.(월)~2. 22.(금) 2019 SNU 국제음악캠프
10. 30. (화) 문화관 중강당 화요음악회) 김하나, 장미경 듀오 연주회	

성악과		
김민지 13	2018 제44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김지유 14		3위
박누리 17	2018 제23회 음악춘추 콩쿠르	1위
김혜림 16		2위
박서호 16		3위
김성현 16	2018 제67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2위
박서호 16		2위
김성연 15	제24회 수리음악콩쿠르	1위
김혜림 16		2위
국악과		
최용석 14	제38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임도경 석17		금상
김수진 17		금상
조수황 16		은상
손성국 16		금상
이찬우 18		은상
한민지 15		동상
김상봉 17		동상
이규영 15		동상
한민지 15	제28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김영은 16	제28회 KBS 국악대경연	장원
박수범 14		차상
윤예슬 15	제27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상
박종찬 15	제16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상
윤지현 석18		대상
윤예슬 15		금상
제갈설 16	제23회 완산전국국악대제전	대상
기악과		
김강태 16	제4회 Tak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2위
이린다 17	제 48회 삼익-자일러 피아노 콩쿠르	2위
Xie, Yutong 석17	Neo Musica Concours	3위
방경난 석18	제24회 수리음악콩쿠르	대상
윤성민 16		2위
윤정현 14		3위
김규리 17		장려
김현지 15		1위
고가연 18	White Nights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Competition	4위
서필원 박17	6 th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Piana del Cavaliere" in memoriam Pietro Iadaluca	1위
백지민 18	제27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2위
홍현 18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	2위
박강현 석17	제25회 KBS한전음악콩쿠르	2위

출연자명	기금명	기금용도	납입일자	납입금액	지원단위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1-17	100,000	음악대학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2-14	100,000	음악대학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3-16	100,000	음악대학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4-17	100,000	음악대학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5-17	200,000	음악대학
김경아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학술	2018-06-15	200,000	음악대학
김규동		학술	2018-01-17	50,000	작곡과
김규동		학술	2018-02-14	50,000	작곡과
김규동		학술	2018-03-16	50,000	작곡과
김규동		학술	2018-04-17	50,000	작곡과
김규동		학술	2018-05-17	50,000	작곡과
김규동		학술	2018-06-15	50,000	작곡과
김우진	이론전공장학금	학술	2018-03-14	100,000	국악과
누리모		위임	2018-06-01	1,000,000	음악대학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1-11	500,000	성악과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2-13	500,000	성악과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3-13	500,000	성악과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4-11	500,000	성악과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5-11	500,000	성악과
박미혜	태리장학금	학술	2018-06-12	500,000	성악과
백승희	가야금 발전 장학금	학술	2018-06-11	150,000	국악과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1-25	100,000	국악과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1-30	100,000	음악대학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2-28	100,000	음악대학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2-26	100,000	국악과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3-26	100,000	국악과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3-28	100,000	음악대학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4-25	100,000	국악과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4-30	100,000	음악대학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5-25	100,000	국악과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5-29	100,000	음악대학
송경희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학술	2018-06-25	100,000	국악과
송경희	장학	학술	2018-06-28	100,000	음악대학
안인희	음악대학 WIN 장학기금	학술	2018-06-25	10,000,000	음악대학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1-17	300,000	국악과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2-14	300,000	국악과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3-16	300,000	국악과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4-17	300,000	국악과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5-17	300,000	국악과
양경숙	해금전공장학금	학술	2018-06-15	300,000	국악과

20 발전기금 후원자 명단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m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880-8004)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기본정보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 직장)		이메일	
	전화자택	직장	휴대폰	
	직장직장명	부서	직위	
구분	☐ 동문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 (기수)	
	☐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 교직원	부서	직위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 대학 중점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 (대학에 위임)				
	☐ 단과대학(원), 학과, 연구소 등 기관명 [] ☐ 위임 ☐ 학술 ☐ 장학 ☐ 연구 ☐ 시설 ☐ 기타[]				
약정금액	☐ 정액후원	일금 W 원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 년 월 (회 분납)		
	☐ 정기후원	매월 W 원씩	년 월 부터 정기자동이체		
기금명칭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납부방법(택 1)

☐ 통장 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 10일 ☐ 25일
☐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결제일 ☐ 10일 ☐ 25일
☐ 기타	☐ 교직원 급여공제 ☐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선택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주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주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정보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급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급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 · 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일 (서명)



SNU MUSIC

발행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상직

기획 및 편집·위원장

Hilary V. Finchum-Sung

기획홍보실

박예림 작곡과 이론전공

디자인·인쇄

가람문화사
